

## <라구나우즈 한인들 탈북자 구출기관 LINK 단체방문>

라구나우즈 한인회에서는 4.19 기념일을 맞아 김일홍 회장 인솔하에 22 명의 회원이 Long Beach 로 새로 이전한 탈북 지원기관인 LINK 를 단 체 방문하였다.

은퇴한 노년들임에도 지난 한해 동안에 \$40,000 을 모금하여 그 기관을 통해 12 명의 탈북자를 구출해 내는데 함께했던 인연 때문이었는데 마침 새로 이전한 사무실 방문차 New York 으로 온 송한나 LINK 대표와도 만나 탈북자의 실정을 듣는 기회를 가졌다.

대다수가 처음 방문이었는데 눈코 뜰 세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세계 각지로부터 온 20 여명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보며 감동과 감사와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방문이었다고들 입을 모았다. 한국인 동족의 문제인데 한국인은 거의 없는 대다수가 백인 대학생 고등학생 또래의 봉사자들이었는데 중국에서 당하고 있는 비참한 인권의 실상을 듣고는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자비로 식사를 해결 하며 2-4 개월씩 합숙 하며 봉사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일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심 가져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백인봉사자들로부터 받으면서 주객이 전도된 미묘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며 오히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노구들을 이끌고 스스로의 손으로 한푼 한푼 모은 돈으로 구출해낸 대다수가 어린 아이들인 사진들을 보면서 더욱 분발하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던 방문이었다고 한다.

이곳 1,200 명 회원들이 플라스틱 물병 버리지 않고 하루 두 개씩만 모으 면  
매 달 한 명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 보면서 돈이 아닌 관심이  
문제임을 새삼 느끼게 했던 방문이었다고 한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링크를 방문한 라구나우즈 한인회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 라구나우즈 시니어들 '십시일반' 탈북자 돕기

한인회 회원들 마라톤 참가 등 자발적 기금마련  
주류 비영리단체서 '지원활동 감사' 초청 오찬회도

남가주 최대의 실버타운으로 어바인 남부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라구나우즈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모임인 '라구나우즈' 한인회(회장 김일홍)는 한인 시니어 단체로는 보기 드물게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기금은 라구나우즈 한인회에서 개최하는 음악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에서 얻는 수익금뿐만 아니라 회원 개개인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작년 한해동안에 4만 여달러를 모아서 롱비치에 있는 탈북 지원기관 '링크' (LINK)에 전달했다.

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 김영순

씨는 "하와이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풀코스 완주하기도 했다. 또 남미 볼리비아로 선고를 파는 원종목 복사는 한인들이 모금에서 준 전액을 탈북자 지원 기부금으로 보내이션했다."

김일홍 회장은 "라구나우즈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기금모금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계속해서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해에 마련한 기금으로 12명의 탈북자를 구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집은 '라구나우즈 한인회'의 기금모금 활동에 감사하는 의

사에서 '링크' 측은 지난 19일 한인회 회원들을 새로 이전한 롱비치 사무실로 초청해, 오찬모임을 가졌다.

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김홍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심 가져줘 감사하다는 인사말 백인 봉사자들로부터 받으면서 주권이 전도된 미묘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노년들을 이끌고 스스로의 손으로 한분 한분 모은 돈으로 구출해낸 다수가 어린 아이들인 사진들을 보면서 더욱 분발하자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곳 1200명의 회원들이 플래스틱 물병을 버리지 않고 하루 고개처럼 모으면 매일 한 명의 생명을 구출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해보면서 돈이 아닌 관심이 문제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라구나우즈 실버타운은 38명방마을에 1만2736세대 3만 6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800스퀘어피트 규모의 콘도부터 방 4개 이상 2500스퀘어피트의 단독주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주택들이 있다.

입주를 위해선 가족 중 한 사람이 반드시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월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인 받아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라구나우즈 빌리지 맨 사이드 [lagunawoodsilg.com](http://lagunawoodsilg.com)이나 한인회 웹사이트 [lagunawoodokar.com](http://lagunawoodokar.com)을 참고하면 된다.

(문태기 기자)

[tgmoon@koreasias.com](mailto:tgmoon@koreasias.com)

"어깨통증·오십견"  
치료법 알려드려요"  
24일 서양약초 연구회

서양약초연구회와 총대인 원경과 김상범 장현영과 전민희는 오는 24일(일) 오후 2시30분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가우세병원(10101 Garden Grove Blvd.)에서 '제2회 서양약초와 건강' 강수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상범 전문의는 야구선수과 운동선수들이 할 수 있는 한 운동에서 환의 발생하는 관절과 손 손가락 어깨통증의 상당부분을 치료하는 회전근개근육 오십견의 비수술적 치료방법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접근 치료운동 예방운동 침치료가 관해 설명한다.

총대인 원경은 어깨 관절 통증에 요과제이라고 알려진 자연 의초와 한약 중 식용을 소개하고 비수술적 치료인 침술의 효과에 관해 강의를 예정한다. 특히 식용에 넣어드는 각종 건강보조제 및 의초의 올바른 복용 방법과 문재양에 관해 강의를 할 예정으로 강의를 듣는다.

문의 714799-5673

부엌과 연계 저즈 콘서트

부엌콘서트는 오는 30일 오후 7시 엘비스 이벤트 센터(2500 River Ave.)에서 제2회 연계 저즈 콘서트를 개최한다. 입장료는 20달러이다.

참관자들은 현장에서 와인과 음료수를 판매한다. 714562-3860 또는 [buesepk.com](http://buesepk.com).

